****

**숲속 공터의 한 줄기 빛**

루이빌- 실존적 위기의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던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그는 대신 순수한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나탈리 피사르칙은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 정확히 안다.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피사르칙은 후에 그녀가 봉사하는 뉴저지주 분튼의 [제일 장로 교회](http://fpcboonton.org/)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지요."

나탈리의 이야기는 그녀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떠올리게 했다. "그 운명의 날, 나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산책하러 갔습니다. 상처받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를 계속 반복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걸어갈 때, 이상하게도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한 줄기 따스한 햇빛이 내 얼굴을 강렬히 비추었어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깨달았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나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가 봉사하는 교회와 나눌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교회와 관련해 나누어서, 점차 증가하는 정신적 건강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의 집사 회의를 설득해 자살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장로교 전통에서 집사는 "긍휼, 증인, 봉사"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에 집사 회의는 미국장로교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의 기금이 나탈리가 수년간 참여해온 조직, 미국 자살 예방 재단 뉴저지 지부를 지원하도록 투표를 통해 지정하였다.

나탈리 개인의 감동적인 경험은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반향을 일으켰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슬프고, 또 비극적이게도, 우리 공동체는 2020년 코비드 19보다 자살로 더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라고 나탈리는 말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 만연한 불안과 불화를 찾아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준비한다.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ace-global-witness/)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ace-global-witness/) 기금의 절반은 이러한 세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교회에 지급되고, 25%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교회가 보유하며, 나머지 25%는 지역 차원에서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공의회에 전달된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교회는 우리에게 배분된 헌금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엇을 위해 헌금을 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유이다)

나탈리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와 나눌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일깨운다. "듣고, 빛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림자의 계곡을 걸을 때, 우리가 당신의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희망이 없고, 길을 잃었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당신의 품으로, 당신 눈길의 따스함 속으로 더 다가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아멘****.*